

01 교회소식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

1년 동안 성실히 말씀을 암송해 영광 돌린 성도들과 새롭게 임직한 일꾼들로 인해 행복 가득한 우리 교회.

02 생명의 말씀_ 팔복 시리즈 6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청결한 마음을 이루면 항상 응답과 축복 가운데 만나형통하며 정자 새 예루살렘과 3천층에서 하나님 얼굴을 뵈 수 있다.

03 기획특집

타고난 성격, 변화될 수 있을까?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사고, 내성적인 성격, 겸비함에 대한 틀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는지 소개한다.

04 간증

“인도국민을 대신해 감사드립니다!”

인도 연합대성회를 통해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됐고, 최근 목회자인 조카들까지 권능을 체험했다는 첼리아 에벤에셀 장로 간증.

만민뉴스

제602호 2013년 10월 6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성경 말씀이 늘 마음 안에 있어 행복합니다”

2001년부터 전 성도 말씀 무장에 기여한 말씀퀴즈대회



1회부터 12회까지 말씀퀴즈대회 역대 수상자들이 경합을 벌인 작년 11월 말씀퀴즈대회 왕중왕 전(사진 1)에 이어 올해로 13회를 맞은 이번 대회에서도 우리 교회 성도들의 성경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 뜨거웠다. 스피드퀴즈 방식으로 진행된 결선(사진 2), 출전자들에게 큰 힘을 실어준 응원(사진 3), 시상식(사진 4), 필기시험에 임하는 출전자들(사진 5).

남선교회총연합회 주관 제13회 말씀퀴즈대회가 우리 교회 본당에서 있었다. 한 달 앞서 치러진 예선에는 4,208명이 참여했으며, 인터넷으로 생방송 된 이번 대회에는 예선을 통과한 57명의 주의 종과 성도들이 출전했다.

퀴즈대회 문제는 한 해 동안(2012. 8.~2013. 7.) 매주 주보에 실린 성경구절 총 365구절에서 출제됐다. 출제 방식은 동영상 및 찬양을 보고 들으며 연관되는 장절 맞추기, 그림을 보고 연상되는 성구 맞추기, 여러 장절을 불러 준 후 주제가 다른 장절 맞추기 등 다양했다. 말씀을 정확히 암송하고 그 의미까지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

1차, 2차 필기시험을 통해 결선에 진출할 12명이 가려진 뒤, 결선은 부저를 먼저 누른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스피드 퀴즈 형식으로 진행됐다. 출전자들은 사회자가 문제를 다 출제하기도 전에 순발력 있게 정답을 맞히며 탄탄히 다져진 실력을 보여 주었다.

긴장감이 더해질수록 본당 1층을 가득 메운 방청객들의 응원도 고조됐다. 방청객들은 선수들과 함께 문제를 풀며 자신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한편, 푸짐한 상품이 걸린 방청객 즉석 퀴즈와 행운권 추첨을 통해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올해 대상은 안계현 집사(대전), 금상은 이선우 집사(서울), 은상은 허남숙 전도사(대전), 동상은 박철순 권사(서울)와 최금자 권사(서울)에게 돌아갔다.

대상을 수상한 안계현 집사는 “하루 한 구절의 말씀을 순간순간 삶 속에서 떠올리며 반복해서 마음에 깊이 새기려고 노력했다.”며 “말씀 암송이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말씀퀴즈대회는 성도로서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마음에 양식 삼고 있어야 한다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가르침에 따라 2001년부터 개최됐다. 남선교회총연합회 일꾼들의 헌신으로 해가 갈수록 대회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

2013 부목사, 장로, 권사 임직예배

2013년 임직예배가 10월 6일 오후 3시 주일 저녁예배 때 본당에서 드려진다. 이날 예배를 통해 전 세계 1만여 자협력교회를 두고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창대히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부목사, 시무장로, 시무권사 등 66명이 임직한다.

1부 예배에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디모데전서 4장 5절

을 본문으로 ‘성결’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한다. 이어 2부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집례로 부목사 취임, 장로 장립 및 시무장로 취임, 시무권사 취임, 명예권사 취임 및 추대, 협동권사 임명이 있다. 3부 감사와 축하의 시간에는 정구영 목사(예수교연합성결회 부총회장)의 축사와 김기석 목사의 답사 후 천상의소리선교단의 축가가 이어진다.

Since 1982. 10. 10
 만민중앙교회 창립 31주년

INVITATION

천상의 노래와 무용, 오로라 빛의 향연

창립 31주년 기념예배 및 축하공연
 2013. 10. 13(주일) 오후 3시
 전야예배 및 축하공연
 2013. 10. 11(금) 오후 11시



당회장 이재록 목사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자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태복음 5:8)

양식도 없었습니다. 살아갈 일이 막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룯은 앞뒤 상황을 재거나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도 않았습니 다. 오직 한결 같은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극진히 섬겼지요. 이처럼 룯의 마음이 선하고 청결한 마음을 소유했기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부요하고 선한 보아스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다윗 왕의 증조모로서 예수님의 계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악독한 마음을 숨긴채 율법은 물론 장로의 유전까지도 철저히 지켰습니 다. 이들은 금욕적인 생활을 했기에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겼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정결케 하며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겉으로만 행하는 외식주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 책망하셨습니다(마 23:27). 무덤은 시체를 보관하기에 아무리 단장을 해도 속은 부패해 썩은 냄새만 진동할 뿐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거룩한 척했지만, 마음은 온갖 죄악으로 가득했기에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셨지요. 하나님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음 중심까지 깨끗하고 아름답기를 원하십니다.

2.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방법

거룩하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악한 행위는 물론 마음속 죄까지도 다 벗어 버리고 청결한 마음을 갖기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청결한 마음을 소유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투고 헐기 내던 사람은 헐기를 버리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돼야 합니다. 교만한던 사람은 낮아지고 섬기며, 미워하던 사람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돼야 하지요. 악은 모양이라

도 버리고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진리로 채워 가는 만큼 청결한 마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옷에 더러운 뽕이 묻었을 때 ‘깨끗이 빨아야지.’ 생각만 하고, 실제로는 옷을 세탁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마음의 더러움을 발견했다면, 스스로 버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마음의 청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힘과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롬 7:22~24)

여기서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근본 마음을 뜻하며,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찾으려는 진리의 마음입니다. 반면에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란 비진리의 마음을 뜻하지요. 다시 말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를 행하고자 하는 비진리의 속성입니다. 이는 사람의 힘만으로는 버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비진리의 속성까지도 버리고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불같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룩함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3.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이란?

혹자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라고 묻습니다. 사사기 13장 22절에 보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여호와와의 사자만 보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

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했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도되”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했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에도 그들은 죽을까 두려워해 감히 가까이하지 못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출 20:18~19). 그렇다면 왜 누구는 하나님을 뵈지 못하는 반면, 누구는 대면해 보고 친히 동행까지 한 것일까요?

요한삼서 1장 11절에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뵈옵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뵈울 수 있지만 죄악으로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을 뵈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천국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과 3천층에 들어가 주님과 하나님을 가까이 뵈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원이나 1천층, 2천층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주님을 가까이 뵈지 못하지요. 얼마나 성결됐느냐에 따라 각 사람에게서 나오는 영적인 빛이 다르고, 천국의 처소 역시 달라집니다.

또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은 단순히 하나님 형상을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구해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모든 분야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이나 각종 성령의 은사들(고전 12:9~11)을 받아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에 해당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마음 깊이 깨우쳐 마음의 더러움을 온전히 벗어 버리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응답과 축복 가운데 만나형통함을 입으며, 장차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얼굴을 친히 뵈옵는 영광을 세세토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정녕 맑고 깨끗해야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양과 상식으로 겉모습을 다듬어서 행동한다고 해도 마음에 죄와 불법, 불의를 지니고 있다면 진정 아름다운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고 오로지 진리 안에서 정결하고 깨끗해 악이나 무례함은 생각지도 아니하며 불의를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 흠도 점도 없는 진리의 선한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과 사랑으로 마음을 청결하게 만든 사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팔복 중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룯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를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청결해 복을 받은 룯은 모압 지방의 이방 여인으로 자녀도 없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습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정성을 다해 섬긴 효부였지요. 룯은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 시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곳은 낯선 땅으로 당장 거할 집도 넉넉히 먹을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 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일·공요철야 각 지역별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번 출구)/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도보 10분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 5626,5630,5712,5714
연희미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 651,5528 504,643,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 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 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자녀예배 3: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 일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사람의 타고난 성격, 변화될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이 타고난 성격은 고칠 수 없다고 하며 자신의 성격적인 면을 고집하며 살아간다.
 물론 사람마다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어떤 성격이 좋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다.
 그런데 성격적인 특징이 너무 두드러져 상대를 힘들게 하고 화평이 깨어지며 주변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주 안에서도 성격적인 분야로 인해 서로 간에 고통을 받는 일이 생긴다.
 가령, 급한 성격의 사람과 느긋한 성격의 사람이 만나 서로 자기 기준에 맞춰 주기를 원한다면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다.
 또한 부정적인 사고의 틀이나 내성적인 성격의 틀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자신의 성격을 고집하면 점점 틀로 굳어지기 마련이다.
 성격의 틀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기도하며 궁구해 나가면 자신에게 어떤 성격의 틀이 있는지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다.
 항상 '내가 아닌 진리'를 기준 삼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으로 변화돼 아름다운 영의 마음을 이룰 수 있다.
 다양한 성격의 틀 가운데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부정적인 사고의 틀을 깨뜨리려면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을 느낌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부정적인 성격의 틀이 있으면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도 믿음의 고백이나 행복한 말보다는 자기도 모르게 근심과 걱정을 전달하게 되고 은혜와 덕이 되지 않는 말을 하게 된다. 또 누군가에게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하거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그것을 만회하거나 상대를 기쁘게 해서 관계를 회복하려 하기보다는 뒤로 물러서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만다.

이처럼 성격적으로 염려, 근심, 걱정이 많다 보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해도 매번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기에 하나님을 믿어 드리고 행할 때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뀌고 안 될 것도 되고 될 것은 더 잘된다.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한다면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을 느낌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부정적인 성격의 틀이 있으면 감사하고 기뻐한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늘 수심이 있다. 혹여 어려운 일이 생기면 믿음으로 이겨 나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으로 인해 힘들어 한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조차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떠올라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다.

따라서 하나님 사랑을 느끼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럴 때 마음과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빌 4:6-7).

내성적인 성격의 틀을 깨뜨리려면

넓은 시야와 마음으로, 사랑과 덕으로 주변을 품을 수 있어야

내성적인 성격은 자신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 타고난 성품일 수도 있고 살아온 환경 속에서 큰 상처를 받아 형성된 경우도 있다. 가령, 사람들에게 실망해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누거나 자신의 진심을 내보이는 것을 피하려 한다. 혹은 자신의 수치스런 부분을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마음에 자기를 숨기고 가려온 것이 성격으로 굳어져 버린 경우도 있다.

이런 성격의 틀이 있으면 내 편에서는 상대에게 불편한 마음이 없고 친절하고 깃듯하게 대해 준다 해도 상대가 나를 대할 때 편안함을 느끼지 못한다. 비록 남에게 어떤 악을 행하지는 않는다 해도 주변에 은혜를 끼치거나 덕을 베풀 수 없고, 사랑의 마음을 느끼도록 전달해 주

기도 어렵다. 때로는 상대를 불편하게 할 뿐 아니라 자신의 영적 성장에도 방해가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상대 입장을 공감하는 능력이나 서로 소통하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

이처럼 상대에게 자신의 마음을 내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상대 입장이나 마음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 성격의 틀을 깨뜨려 변화되고 영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좁은 마음을 갖게 하는 성격의 틀을 깨뜨려 상대의 마음과 입장, 형편까지 헤아려 살펴 주는 마음이 돼야 한다. 더 넓은 시야와 마음으로, 사랑과 덕으로 주변을 품을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겸비함에 대한 성격의 틀을 깨뜨리려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어떤 상황에서 겸손하게 처신한다 하더라도 뒤로 물러설 때와 물러서지 말아야 할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가령, 어떤 일을 행해야 할 때 부족하다는 생각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신뢰해 담대히 행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충성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서야 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겸비함에 대한 성격의 틀이 있는 사람은 "나는 앞에 나설 만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성품도 아니라서." 하며 물러서거나 "더 잘하는 분, 사모하는 분에게 맡기면 좋겠습니다." 하고 피하려고만 한다. 이런 경우, 타고난 성격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떤 계기로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온 경우도 있다. 원래는 성품도 담대하고 열정적인 일꾼인데, 오랫동안 연단 중에 위축되다 보니 스스로 놀리는 마음이 있어서 더 담대하게 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내가 아직 영에도 못 들어갔으니,' 혹은 '아직 믿음의 반석에도 서지 못했으니 하나님 일을 앞서서 하는 것이 가하지 않다.'고 자기가 한계를 그어 버린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충성하며 하나님 능력을 구해야 할 텐데, 오히려 위축돼 물러서는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일이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설령 믿음의 반석이 아니고 영이 아니라 해도 함께 역사해 주신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신다. 설령 자신의 성품과 맞지 않는 일을 맡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사명을 감당하고자 애쓰는 과정에서 차츰 자신의 성품을 초월해 더 큰 일을 이루게 된다. 한 번 두 번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자신의 성격을 초월해 갈 수 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3.10.6~10.12

| | | | |
|---|---|--|--|
| <p>이재택 목사의 '생명의 말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국 24-28 • 신뢰 • 성령의 음성주권인도 1-5 • 믿음의 분량 26-27 • 죽어지는 밀일이 되자 1-2 • 심고 거두는 법칙 3-4 •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3 | <p>GCN TV설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시행하리니 9-13 (이수진 목사) • 자기 발견 (이수진 목사) • 의와 틀 3 (신동초 목사) • 모든 것에 사랑으로 (김수정 목사) • 영원한 것을 위하여 (한주경 찬양선교사) • 'GCN TV특강' - 십자가의 도 1,2 (장구영 목사) | <p>간증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리스천 투데이 2, 4-6, 48 • GCN 간증 스페셜 17-21 • 만민의 간증 13-15, 18 <p>해외성회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두라스연합대성회 2 • 페루연합대성회 종합편 | <p>찬양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찬양과 경배(3) 72-76, 82 • GCN 금요찬양 스페셜 17-22 • 만민찬양 <p>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1577-2073</p> |
|---|---|--|--|



“인도 영혼들에게 향한 하나님 사랑은 끝이 없으십니다”

첼리아 에벤에셀 장로 (인도 첸나이 실업인선교회 회장)

종교법인 '만민 미니스트리 인디아'를 설립해 인도에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를 전하며 축복이 넘쳐

성회 후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된 저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한정희 목사님(첸나이만민교회 담임)과 함께 '만민 미니스트리 인디아'라는 종교 법인을 설립했지요. 이후 첸나이 실업인선교회 주관으로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해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의 일에 힘쓰니 사업터에 축복을 받아 더욱 활발히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지요.

그러던 중 서울 만민중앙교회를 두 차례 방문했는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귀국 후에는 가족 친지들에게 만민중앙교회 소식과 이 목사님의 영적인 말씀, 신앙서적 등을 전해 주곤 했지요. 이로 인해 목사와 전도사로 사역하는 조카들도 권능의 현장인 만민중앙교회 방문을 사모하게 됐습니다. 지난 8월 초에는 조카들과 함께 '2013 만민하게수련회'에 참석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8월 5일 오후 7시 30분,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예능팀의 아름다운 특송에 이어 사회자가 강사 소개를 할 때 한두 방울씩 떨어지던 비가 점차 굵어져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록 목사님께서서는 비를 맞으면서도 조금도 요동치 않았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지요.

'2013 만민하게수련회'에 참석해 지난 일들을 떠올리며 이재록 목사님의 권능의 역사에 다시 한번 감탄해

그 순간 저는 인도 연합대성회의 한 장면이 떠올랐고,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성회 셋째 날인 그 당시에 강사 이재록 목사님께서서는 세찬 빗줄기를 맞으며 설교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첸나이 시는 10개월간 비가 오지 않았던 터라 비는 곧 축복이었습니다. 이에 참석자들은 요동함 없이 행복하게 경청했지요. 말씀 증거 후에는 단 위에서 해 주시는 환자 기도를 통해 무수한 사람이 치료받아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다음 날, 성회 실황 TV 생중계를 시청한 사람들이 성회 현장을 찾았고 수많은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실까?'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저는 이재록 목사님께 시선을 집중했지요. 강사 소개가 마치자 이 목사님께서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야 멎으라. 비를 머금은 구름들은 흩어져라. 하늘이 보이고 별들은 나오라."고 명한 후 교육을 시작하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놀랍게도 먹장구름이 흩어지고 비가 그쳤으며 파란 하늘이 열리고 별들이 보였습니다. 시원한 바람도 보내 주셔서 젖은 옷도 신속히 말려 주셨지요. 할렐루야! 교육을 마친 이재록 목사님께서서는 참석한 전 성도를 위해 환자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갖가지 질병을 치료받아 간증했지요. 그 가운데에는 제 조카들도 있어서 더욱 감동이 됐습니다.

기도받은 즉시 22년 된 질병을 치료받은 빅터 셀반 목사와 4년된 고혈압을 치료받은 싸이몬 전도사

이재록 목사님 간증수기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를 읽고 큰 은혜를 받아 GCN 방송을 매일 시청하고 있는 빅터 셀반 목사(시온가든 하나님의 성회 교회 담임)는 요산(단백질 노폐물)이 무릎 관절에 축적돼 통풍으로 늘 부었고, 심한 통증으로 22년간 고통받으며 살아왔습니다. 흑여 닭고기와 쇠고기 같은 육류를 섭취하면 요산염이 체내에 더 쌓여 다리가 심하게 부었기 때문에 채식으로 늘 몸 상태를 조절해야 했지요. 그런데 단에서 이 목사님께서 해 주시는 기도를 믿음으로 받은 후 모든 통풍 증상이 사라진 것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고 소고기, 닭고기 등 육류를 마음껏 먹어도 아무런 통증이 없었지요. 싸이몬 전도사(시온복음기도 교회 부교역자)도 4년 된 고혈압을 치료받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만민의 사역에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수많은 해외 목회자를 만났지만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은 이재록 목사님입니다. 지금도 인도의 많은 주의 종과 성도들이 이재록 목사님과 성회를 기억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원하시며 12억이 넘는 인도의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참 목자를 만나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권능의 무안단물터에서 조카들과 함께한 에벤에셀 장로(왼쪽부터 싸이몬 전도사, 로빈슨 알렌 다니엘 목사 내외, 에벤에셀 장로, 빅터 셀반 목사)

인도 타밀나두 주 마두라이 시의 부유한 기독교 가정에서 출생한 저는 운동을 매우 좋아해 레슬링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선한 가르침과 삶의 모습이 주님께 헌신하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지요.

그래서 '그린필드 엔지니어링' 대형 밸브 생산업체를 운영하면서, 첸나이 실업인선교회 회장직을 맡아 선교 사역을 펼쳐 왔습니다. 현지 목회자와 선교사들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하며, 첸나이 시에서 개최되는 해외 유명 강사들의 성회도 적극 도왔지요.

'2002 이재록 목사 초청 인도연합대성회'를 통해 복음의 진수를 맛보고 참된 권능의 증임을 확신해

어느 날, 평소 친분이 있던 오웬 로버트 목사님을 통해 이재록 목사님을 강사로 한 성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저는 성회 홍보위원장으로 TV와 신문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해 성회를 알리기에 힘썼지요.

연인원 300만 명이 참석한 '2002 이재록 목사 초청 인도 연합대성회'는 인도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그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신 축복의 성회였습니다. 성회를 준비하는 동안 여러 형태의 어려움과 방해가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성회 개최 직전에 인도 타밀나두 주 정부가 발표한 강제개종금지법령은 성회 준비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에게도 큰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웬만한 목회자라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이재록 목사님께서서는 오직 믿음으로 행군하셨지요.

그 결과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이 넘쳐났고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영혼이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영접하고 갖가지 질병을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저는 성회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의 손길 가운데 이뤄지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391 ☎041)777-707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룡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사량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창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지평동 1181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3771-7970
- 총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해동 765-2번지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진주만민교회 전북 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1(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26-3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월피동508-1 ☎031)485-9143, 010-5583-4697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0-7127-2073
- 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천동 698-12 ☎032)569-3835, 010-3430-3312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 367-4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7127-2073
- 인천지성전 경기도 인천시 중리동 465-4 ☎031)635-9103, 010-7103-4097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8163-1537